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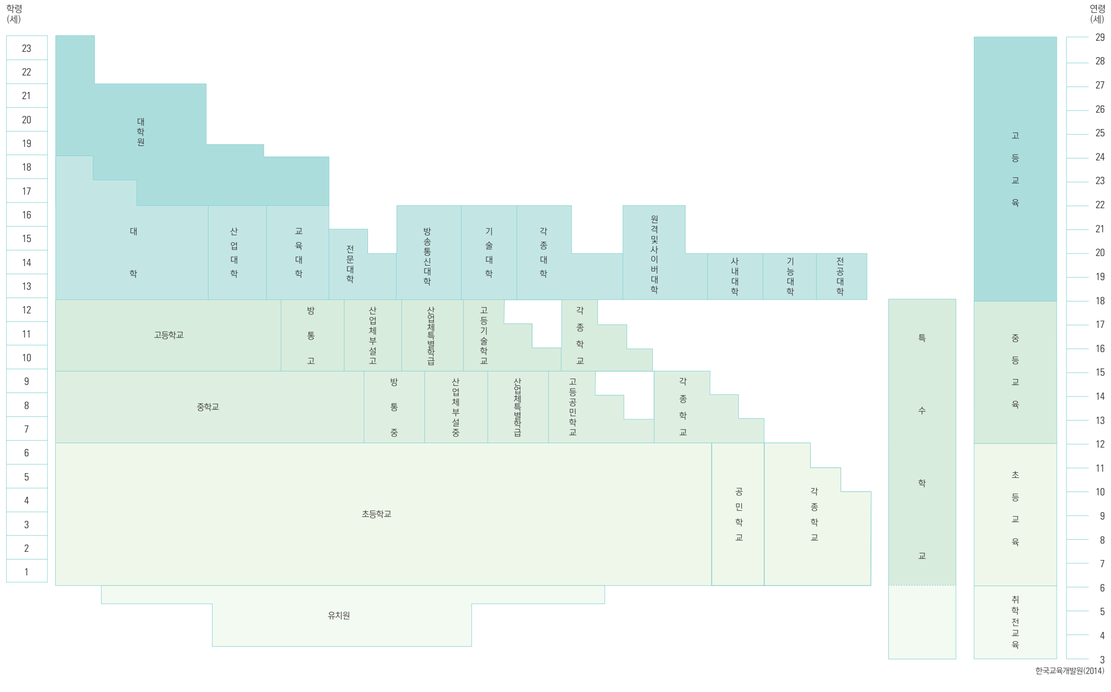
교육은 현대 한국인의 관심과 고민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은 출산율의 변화와 인구 구조, 가계 지출, 주거지의 선택과 도시 계획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깊다. 또한 높은 교육열과 사교육을 비롯한 교육비에 대한 많은 지출은 대한민국 사회의 특징 중 하나이다.

여러 나라에서 국민 국가의 성장과 함께 근대 교육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근대화 과정에서 교육에 큰 변화가 있었다. 대한민국의 학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초등 교육,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중등 교육,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인구는 6년의 초등 교육과 6년의 중등 교육을 마치게 되며,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으로 진학하는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각 학령 연령별 교육은 다양한 교육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과 중등 교육은 국가가 설립한 공교육 기관과 함께 다양한 사립 교육 기관 담당하고 있으며,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다양한 학교가 존재한다. 특히 학령이 높아질수록 진학, 취업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많다. 최근에는 국제화 교육에 초점을 맞춘 학교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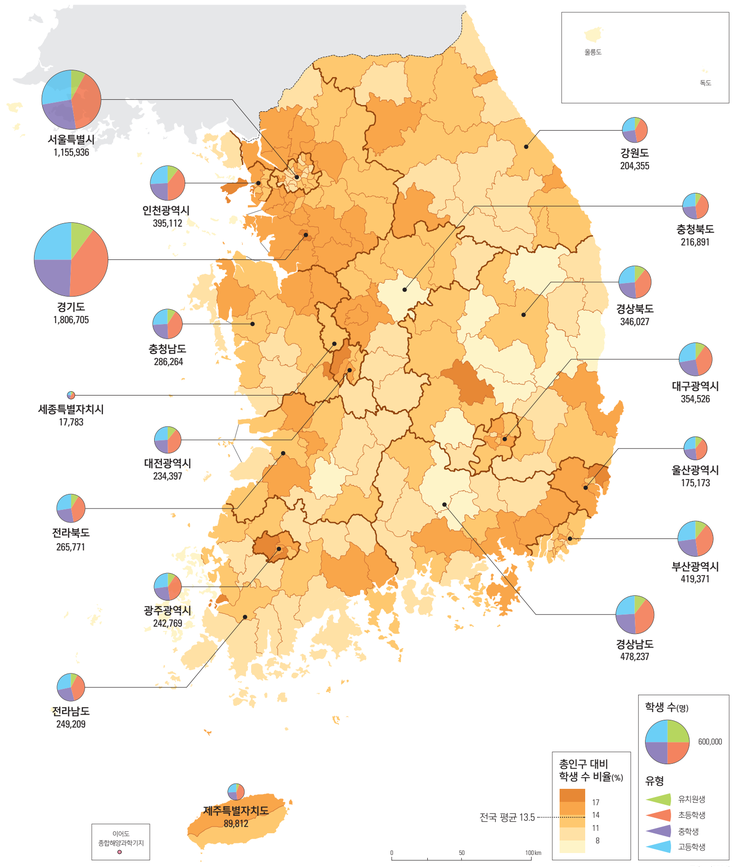
고등 교육은 4년제 일반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을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분야의 인력 양성의 목적을 가진 대학이 존재하며, 최근에는 원격 및 사이버 대학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많은 대학원을 통해 석사와 박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해외의 대학원으로 유학하는 학생도 많다.

대한민국 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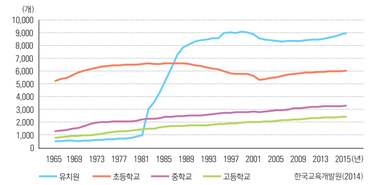


교육의 변화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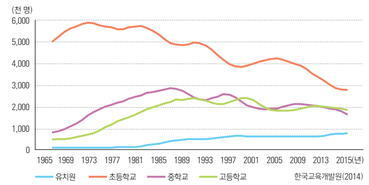
학교 급별 학생 수(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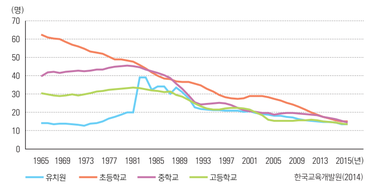
학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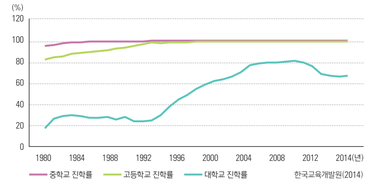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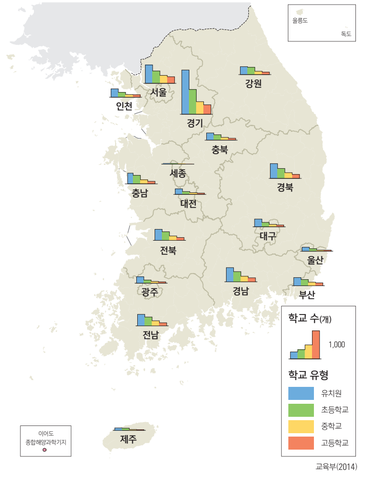
교사 1인당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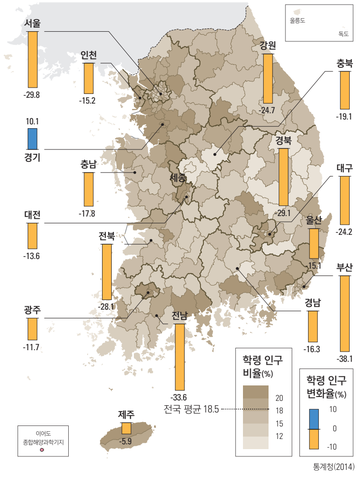
진학률



학교 급별 학교 수(2014년)



학령 인구 변화(2000 –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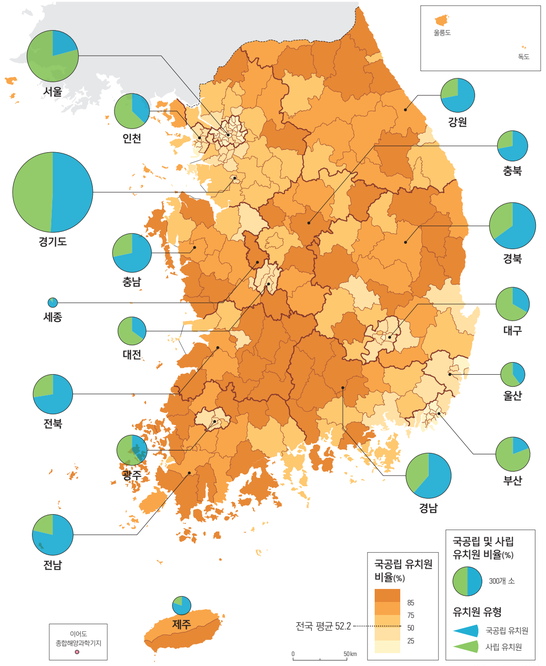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중학교 진학률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실질적으로 100%에 도달하였고, 고등학교 진학률도 1990년대 중반 이후 100%에 근접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다수의 초등학교가 폐교되기도 하였다. 또한 유치원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유치원 수는 198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반면 학생 수는 학령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초등학생의 수는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생 수의 증가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감소로 돌아서게 되었다.

학교와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교원의 충원도 꾸준히 이루어져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학령 인구의 변화는 지역별로 차이가 매우 큰데,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변화를 추적해 보면 경기도에서만 학령 인구가 늘어났으며, 다른 지역은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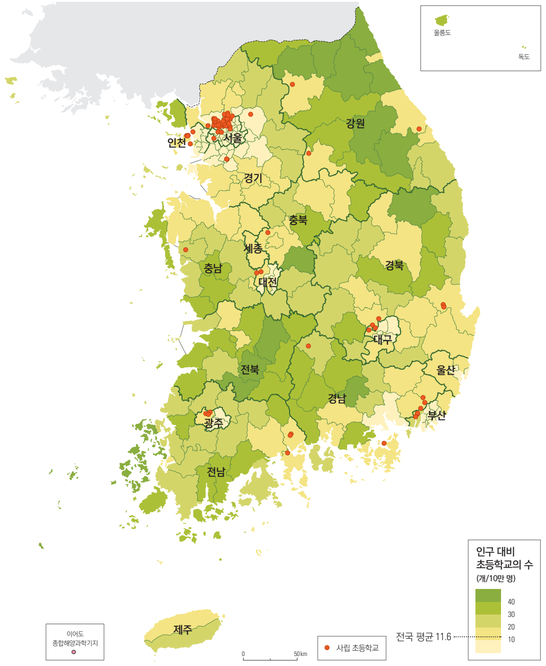
취학 전 및 초등 교육

유치원의 분포(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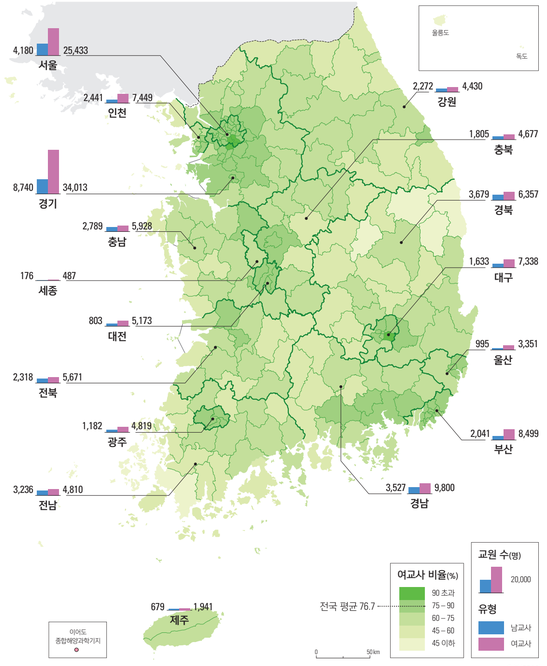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2014)

초등학교의 분포(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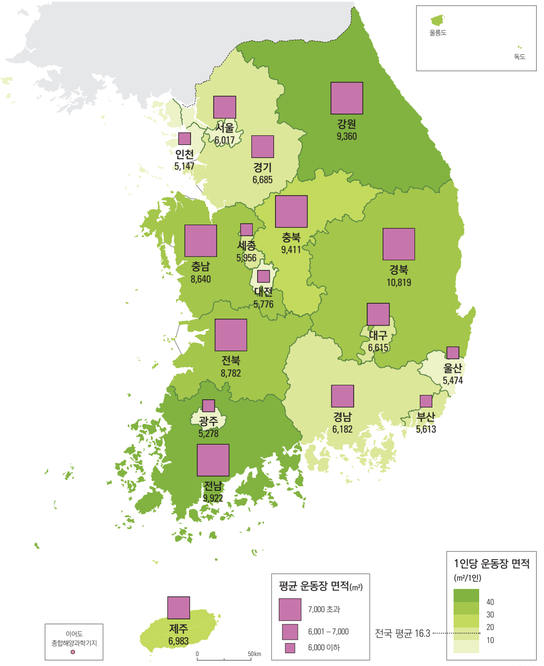
교육부(2014)

초등학교 교원 및 성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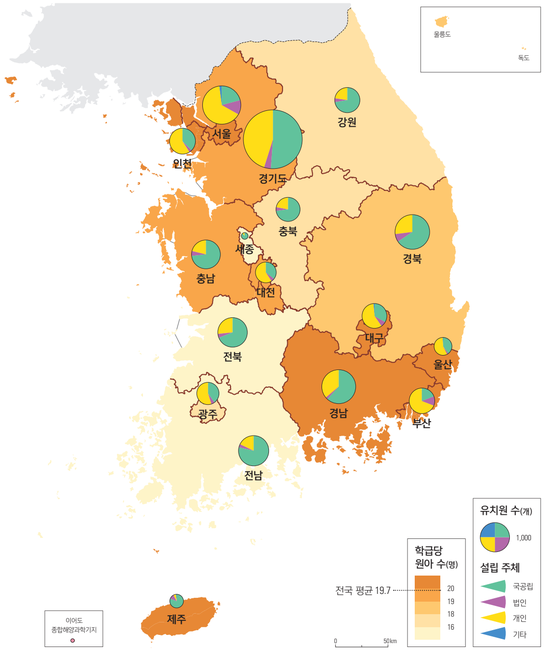
교육부(2014)

초등학교 운동장 면적(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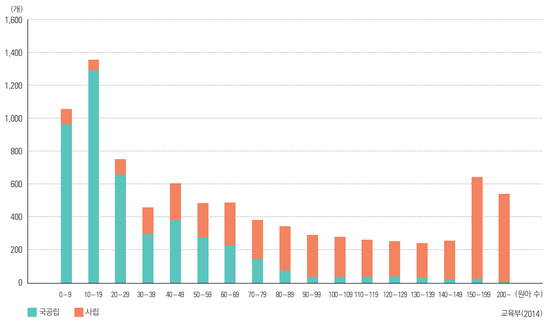
교육부(2014)

설립 주체별 유치원의 분포(2014년)



교육부(2014)

규모별 유치원 수(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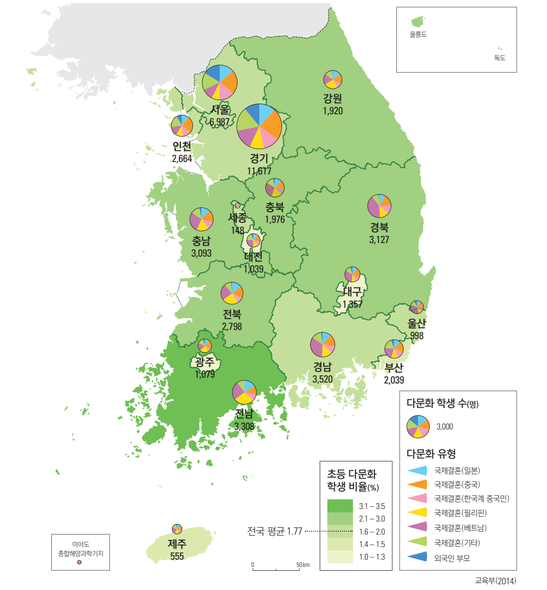
교육부(2014)

유치원은 설립 주체별로 국공립, 법인, 개인 운영으로 나뉜다. 국공립 유치원은 주로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 복지나 종교 단체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법인 유치원에 속한다. 또한 대도시와 원아 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 다양한 사립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다. 농촌 지역은 주로 국공립 유치원이 취학 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아 수가 적은 경우도 많다.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도시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규모가 큰 경우도 많다.

초등학교는 국공립 초등학교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립 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 교원의 남녀간 성비 차이는 매우 크다. 전국적으로 여성 교원이 남성 교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성비의 불균형은 도시 지역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다수의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현상과 반대로 신도시 지역 등 인구의 유입이 지속되는 곳에서는 다수의 학교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학교 용지 구입 등 재정적 문제로 인해 최근 신설된 초등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보다 면적이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 대도시 지역의 초등학교 운동장 면적은 농촌 지역보다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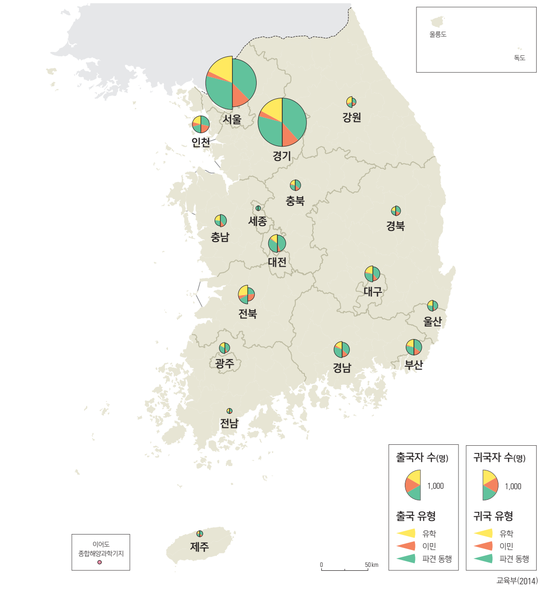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2014년)



교육부(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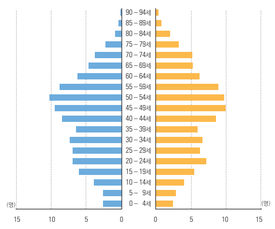
이민자와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면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 국제결혼 가정의 아동과 외국인 부모를 둔 가정의 아동이 많아지고 있다. 외국인 부모를 둔 학생은 주로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은 농촌 지역에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촌 지역에서 국제결혼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생이 국외로 유학을 떠나는 경우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이민, 부모의 국외 파견, 조기 유학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 국외 유학(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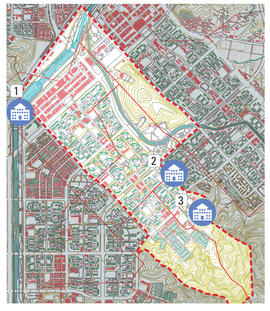
교육부(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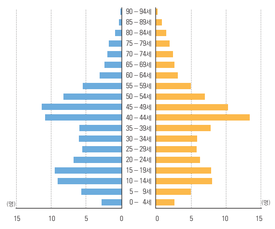
구도심의 초등학교 입지(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1. 명신초등학교 1970년 개교 – 교직원 53명, 학생 421명
2. 창신초등학교 1912년 개교 – 교직원 68명, 학생 68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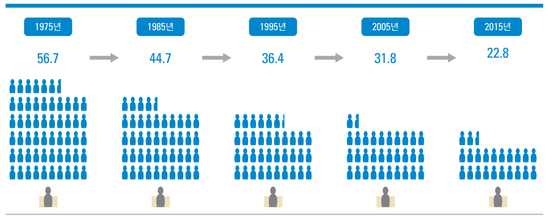
신도시의 초등학교 입지(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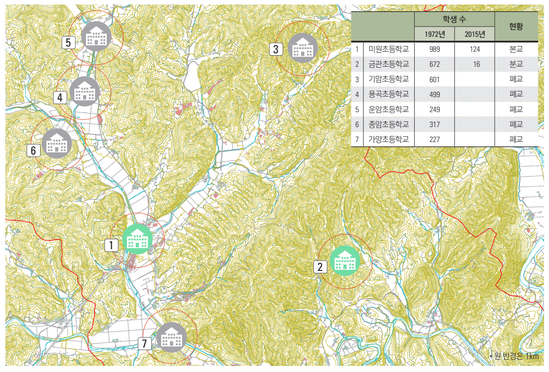
1. 초림초등학교 1992년 개교 – 교직원 72명, 학생 1,056명
2. 내정초등학교 1992년 개교 – 교직원 69명, 학생 1,058명
3. 수내초등학교 1993년 개교 – 교직원 85명, 학생 1,299명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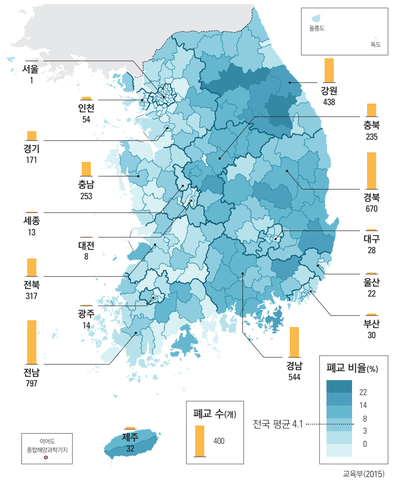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2014)

초등학교 폐교(충북 청주시 미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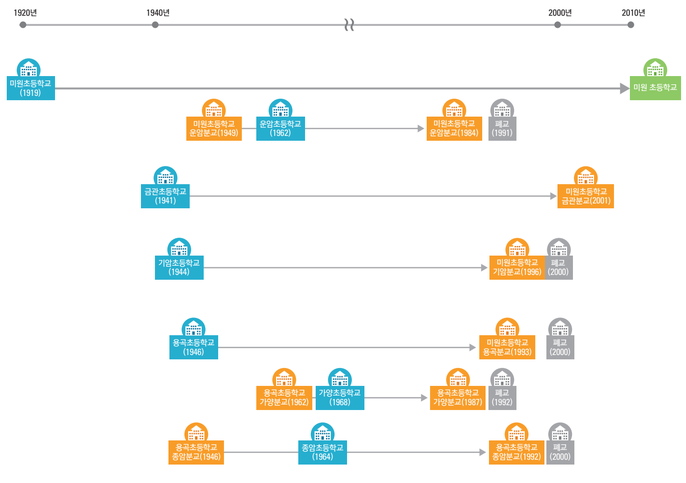
청원군교육청(2003)

폐교 현황(2015년)



교육부(2015)

초등학교 개교와 폐교 사례(충북 청주시 미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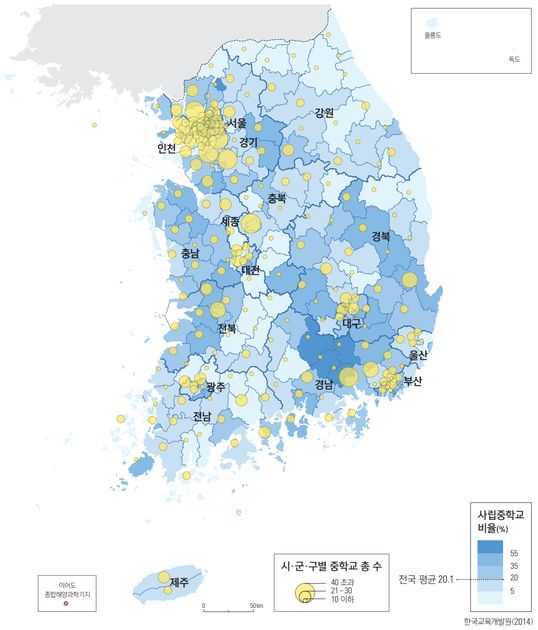


초등학교의 입지는 학생의 통학권뿐만 아니라 도시 내의 생활권,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등과 관련이 깊어 한국의 도시 및 농촌의 공간 구조를 살펴보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도시 지역의 초등학교 입지를 보면 전통적인 구도심의 초등학교는 도시 발달의 초기 단계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설립되었다. 따라서 주거와 상업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교외화로 인한 학령 인구의 감소로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반면 신도시, 택지 개발 등으로 계획적으로 조성된 아파트 위주의 주거 지구에서는 초등학교의 입지가 도시 계획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위주의 주택 단지 특성상 몇 개의 단지가 하나의 초등학교를 공유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통학 거리가 매우 짧고 이는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정이 신규 주택 단지를 선호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라 많은 초등학교가 폐교되었다. 지도에서 사례로 제시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청년층의 유출과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었고 많은 초등학교가 폐교되었다. 이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베이비부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1970년대에 많은 학교가 신설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학령 인구의 감소로 분교가 늘어나고 결국은 농촌 중심지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폐교되는 과정을 겪어 왔다. 최근 이러한 폐교 현상은 비단 농촌의 문제만은 아니며, 대도시의 구도심에 위치한 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되는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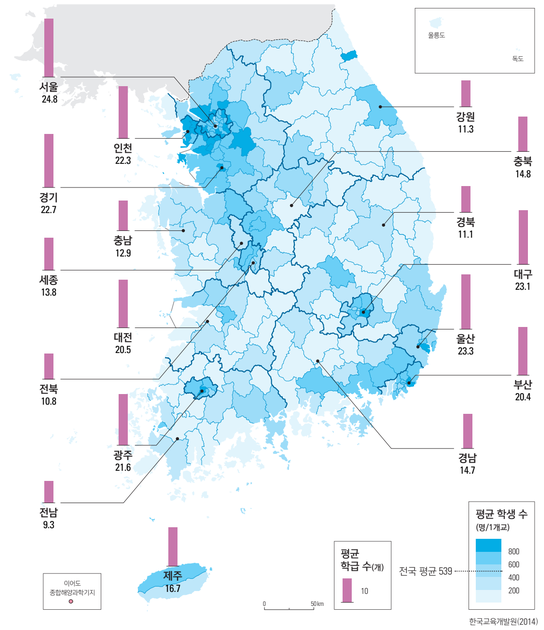
중등 교육

중학교 분포(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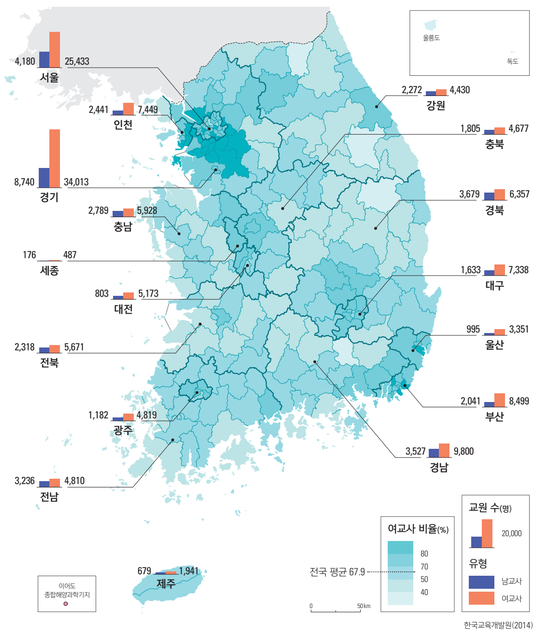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2014)

중학교의 지역별 규모(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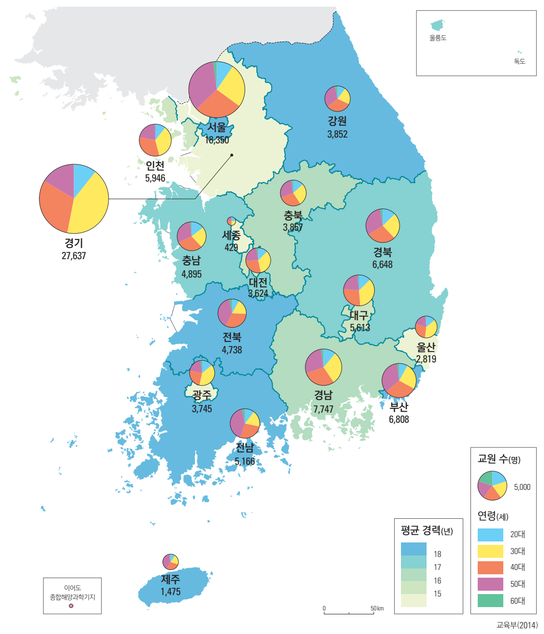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2014)

중학교 교원 및 성비(2014년)



한국교육개발원(2014)

중학교 교원의 연령과 경력(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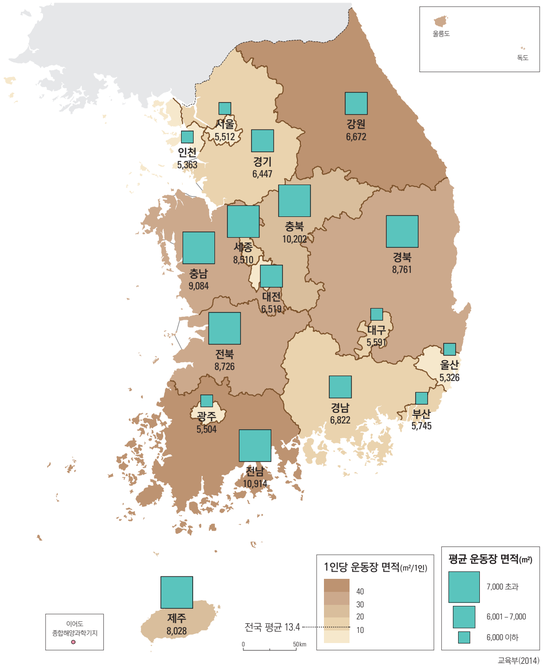


교육부(2014)

중학교는 설립 주체별로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뉘며, 국공립의 비율이 80% 정도로 높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국공립 중학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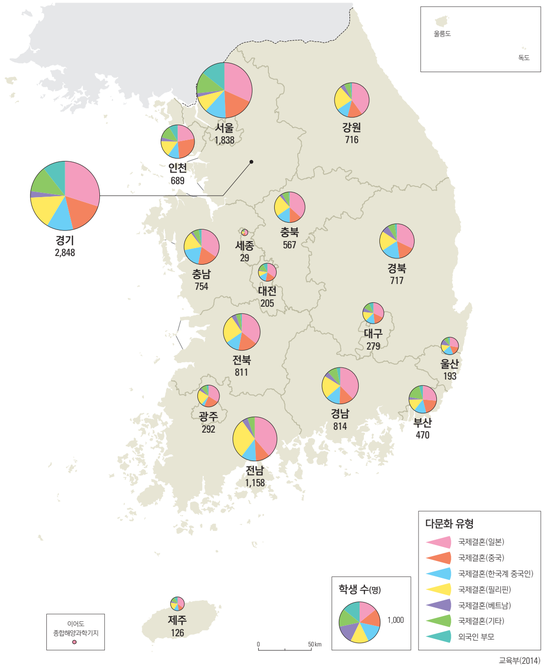
중학교의 규모를 살펴보면 농촌 지역의 경우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도시 지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교원 역시 성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농촌 지역에 비해 대도시 지역의 경우 여성 교원의 수가 남성 교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교원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등 학령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신규 교원의 채용이 지속되어 30대 교원의 비율이 높지만, 다른 지역은 40대와 50대 교원의 비율이 매우 높다.

중학교 운동장의 면적(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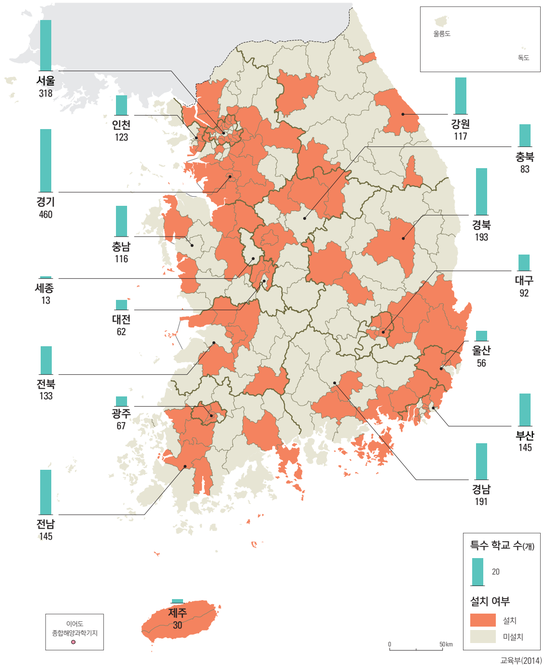
교육부(2014)

중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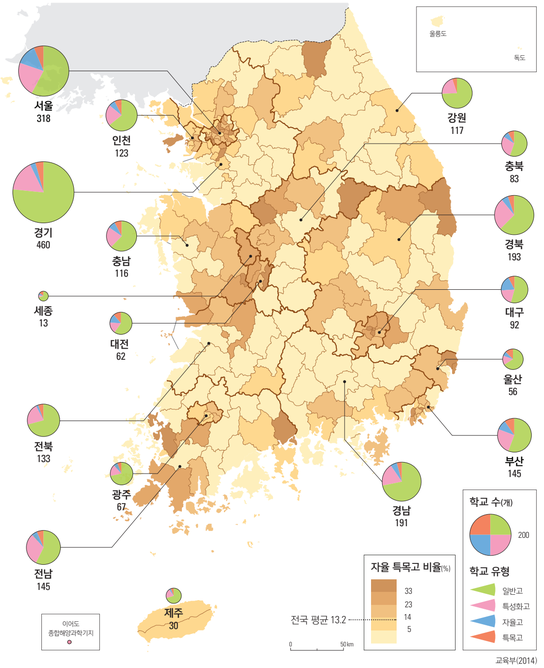
교육부(2014)

특수 학교(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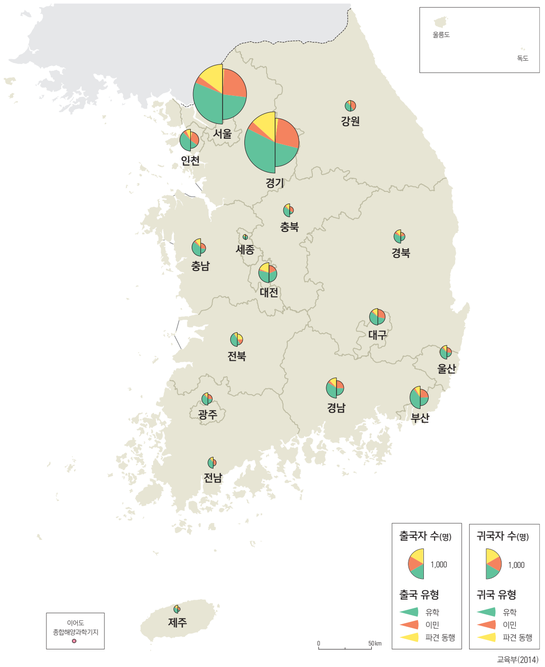
교육부(2014)

일반고, 자사고 및 특목고(2014년)



교육부(2014)

중학교 국외 유학(2014년)



교육부(2014)

중학교 시기 청소년의 체력과 신체 발달에 운동장 및 체육 시설은 매우 중요하다. 중학교 운동장의 크기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광역시의 학교 운동장 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작고, 1인당 운동장 면적도 매우 작다.

중학교에서도 다문화 현상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부모의 학생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농촌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특히 농업 인구가 많은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및 강원도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출신의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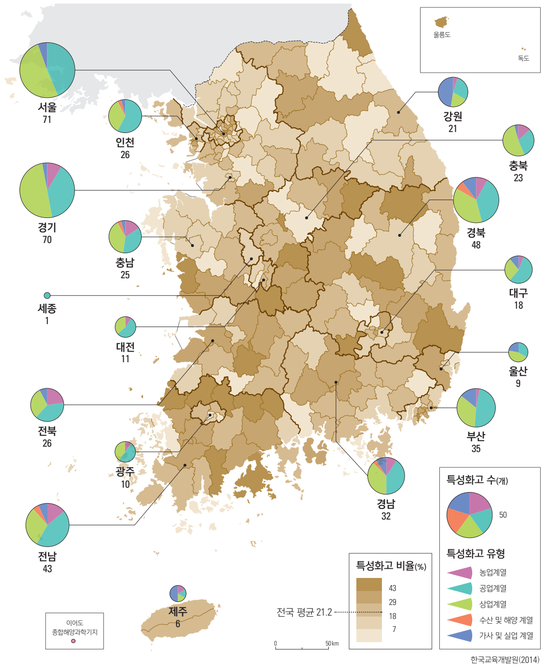
중학교 과정에서 유학에서 돌아온 학생보다 출국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유학 출국 및 귀국 학생이 많으며, 부산, 인천 등 대도시에서도 많은 학생이 조기 유학을 떠나거나 유학에서 귀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학 출국의 경우 유학을 목적으로 하거나 부모와 동행, 이민으로 발생하게 된다.

특수 학교는 장애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로,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 학교는 대도시와 일부 중소도시에만 설립되어 있고, 농촌 지역에는 없는 곳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학교에서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설립 목적에 따라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와 산업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로 나뉜다. 또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외국어와 과학 분야 등의 특화 교육을 위해 설립되었다. 최근 교육과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갖는 자립형 고등학교가 다수 설립되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지역 산업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로 비도시 지역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비율이 높으며, 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사 등 지역 내의 주요 직업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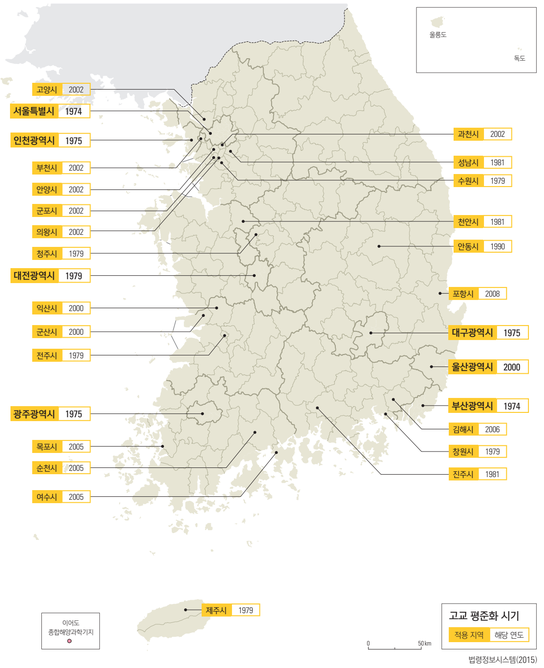
한국의 고등학교는 지역별로 학생 선발 방식에 따라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고교 평준화 지역은 대도시 지역 등 임의로 학교가 배정되더라도 학생의 통학 거리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에서 주로 실시되었으며, 평준화 제도 시행 이전에는 학생들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장이 학생의 선발 방식을 결정하였다. 비평준화 제도가 오랫동안 실시된 지역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소위 명문학교가 등장하였고,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였다. 이러한 명문학교는 우수한 학업 성취도와 동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최근에는 대도시 지역에서 평준화 제도가 확산되고,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새로운 명문학교로 등장하고 있다.

특성화고(2014년)



한국교육개발원(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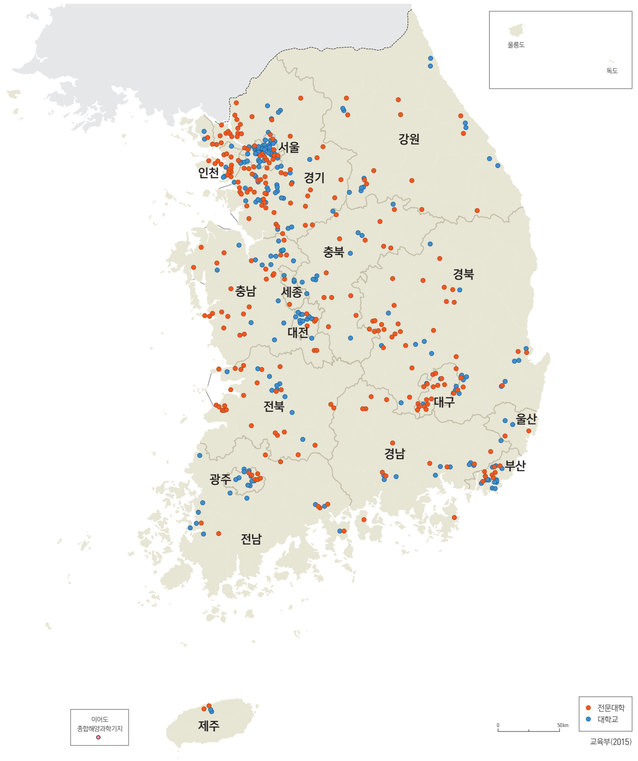
고교 평준화 적용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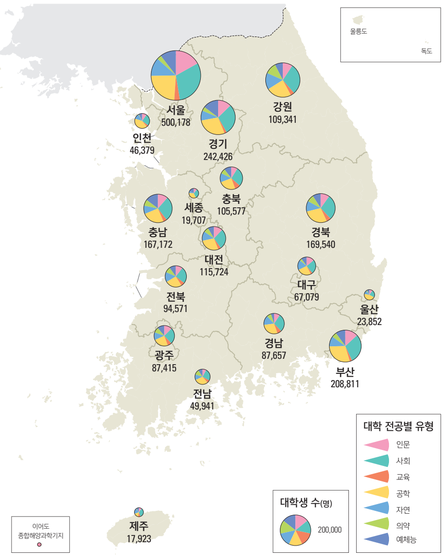
법령정보시스템(2015)

고등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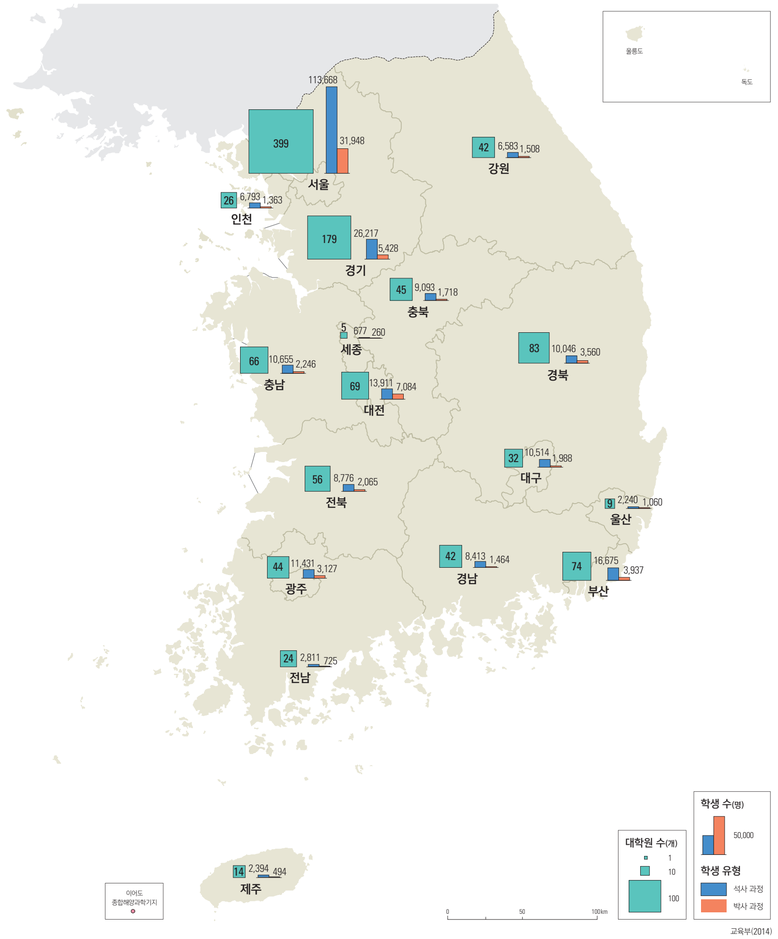
대학의 분포(2015년)



대학교 전공별 분포(2014년)



대학원의 분포(2014년)



대한민국의 고등 교육은 짧은 역사 속에서도 큰 변화를 겪어왔다. 대학 수와 대학 진학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대학교가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다. 대학의 종류는 매우 많은데, 4년제 일반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초등교원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대학, 원격교육을 기반으로 한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 대학이 운영 중이다. 또한 다양한 전문적 직업군을 양성하기 위한 사관학교 등의 대학교도 많다.

대학은 크게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대별되며, 각 도의 중심 도시에는 국립대학이 설치되어 있다. 사립대학은 다양한 설립 주체들이 고유한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한 경우가 많다. 일부 사학은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설립된 민족 교육 기관을 계승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수는 199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대학의 증가와 함께 대학 진학률도 높아져 현재 한국의 대학교 진학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러한 현상은 고학력 인력을 배출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높은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고등 교육비에서 민간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적정한 대학 등록금 수준, 국가의 장학 지원, 대학의 재정 건전성 유지 등이 고등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대학교의 전공은 크게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약, 예체능으로 나뉘며, 정원을 기준으로 사회 계열과 공학 계열의 정원이 각각 60만 명 가량이며, 인문 계열, 자연 계열도 25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등 교육의 발달과 전문 지식의 습득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대학원이 설립되었고, 다수의 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있다. 대학원의 경우 종합대학에서 운영하는 대학원을 근간으로 하여, 종교인 양성, 경영자 교육, 의료인 양성, 법조인 양성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많은 대학원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대학의 교원인 교수는 박사 학위자가 대부분이며, 박사학위 취득 학교는 국내 대학이 가장 많고,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외국 대학도 많다. 그러나 의학 계열의 박사가 대부분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박사 학위 취득자는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있으며, 이 중 미국의 비율이 매우 높다. 또한 최근 대학의 국제화 역량이 증대되고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외국인 학생이 어학 연수와 학위 취득을 위해 한국의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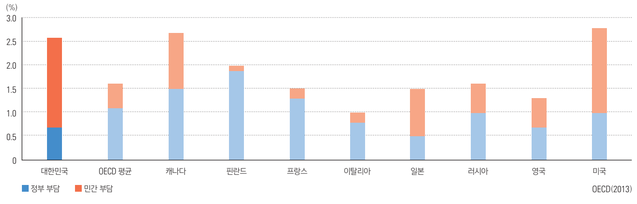
대학의 종류와 수(2014년)

구분		수
전문대학		139
교육대학		10
대학		189
방송통신대학		1
산업대학		2
기술대학	대학 과정	1
	전문대학 과정	0
각종 학교(전문대학 과정)		1
사이버대학	대학 과정	17
	전문대학 과정	2
원격대학(대학 과정)		1
전문대학 과정		1
사내대학(대학 과정)		3
사내대학(전문대학 과정)		5
전공대학*		3
기능대학		12
대학원		1,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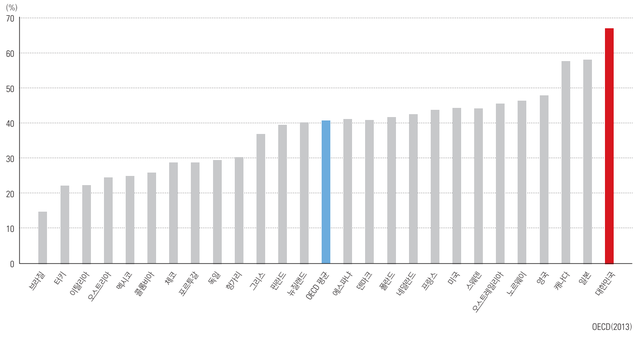
* 초·중등학교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 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 기술 학교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 교육 시설

교육부(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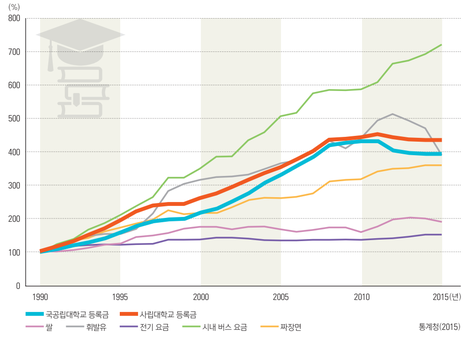
GDP 대비 고등 교육비(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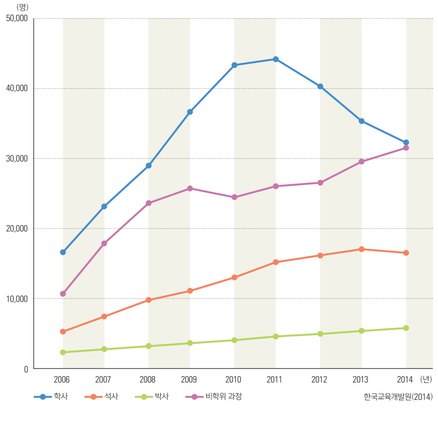
OECD 국가 고등 교육 비율(25 – 34세,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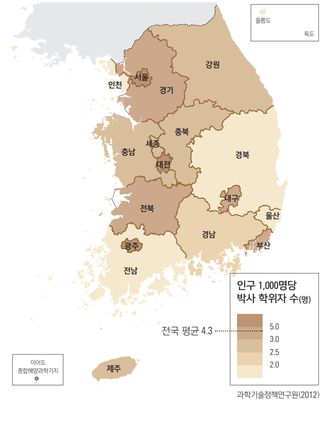
대학 등록금 상대적 증가 추이(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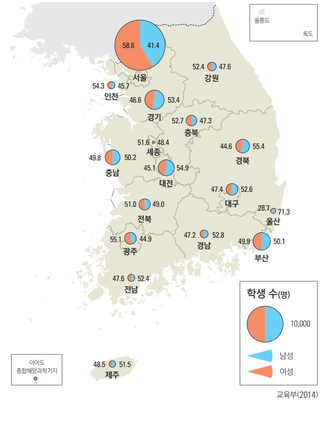
외국인 유학생 추이(2014년)



박사 학위자 분포(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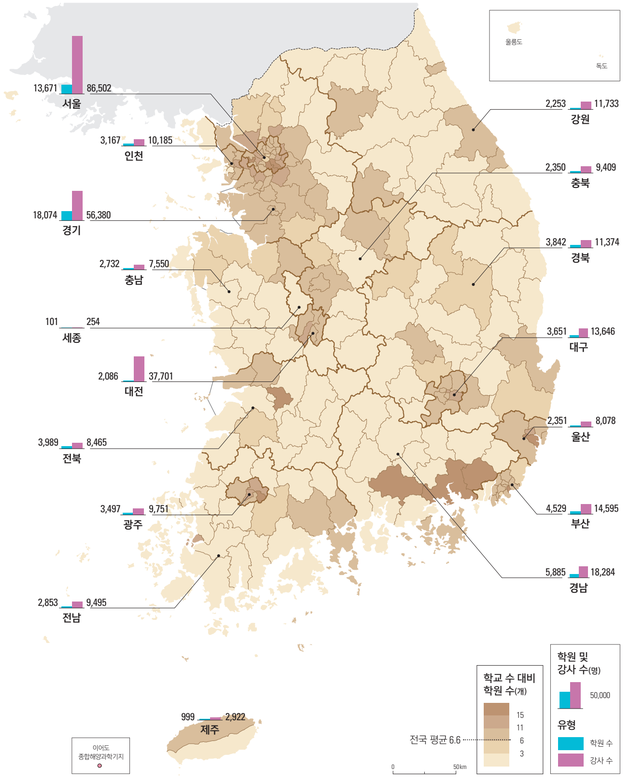


지역별 고등 교육 기관 재학 외국인 학생 수(2014년)



사교육 및 기타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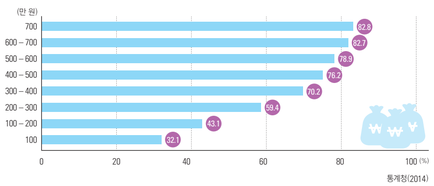
사설 학원(2014년)



교육부(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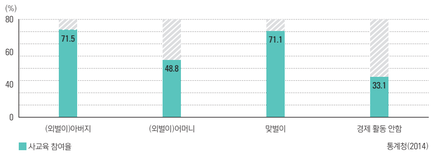
사교육 참여율(2014년)

가구 소득(월)과 사교육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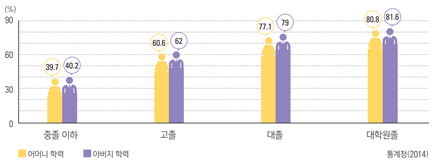
통계청(2014)

경제 활동 유형과 사교육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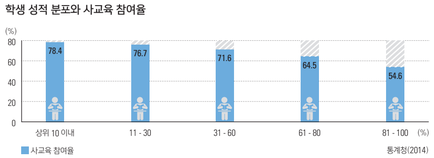
통계청(2014)

부모 학력과 사교육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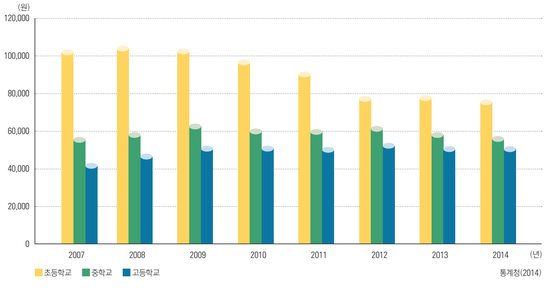
통계청(2014)

학생 성적 분포와 사교육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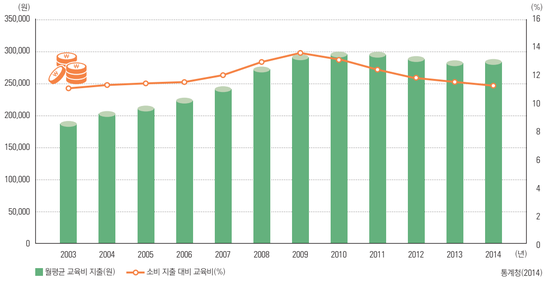
통계청(2014)

학생 1인당 월간 사교육비 지출(2014년)



통계청(2014)

가구 소비 지출과 교육비 지출(2014년)



통계청(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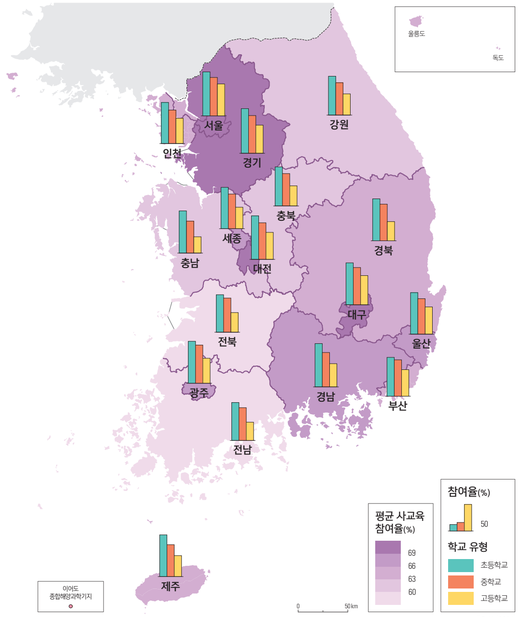
한국의 교육열은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과 과도한 교육열은 사교육의 확대라는 부작용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사교육의 과잉 현상은 한국의 교육 문제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은 저학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국 단위의 통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부터 사교육 참여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 사교육비는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지만 2014년 조사 결과 여전히 18조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초중등 교육 예산의 약 44%에 해당하는 액수로 사교육비 지출은 가정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총 사교육비는 2009년 21조 6천억 원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2014년 약 280,000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총가계 지출의 11%를 넘는 수치이다. 또한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학생이 있는 가구만을 고려하면 교육비 지출이 가정 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적지 않다. 총 가계 소비 지출에서 교육비 비중은 2009년 13.5%를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입시 제도의 개편과 선행 학습 금지, 교육 방송의 강화 등 정부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사교육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교육의 참여에 따라 학업 성취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의 과잉 현상은 공교육의 부실화와 사회적 박탈감의 원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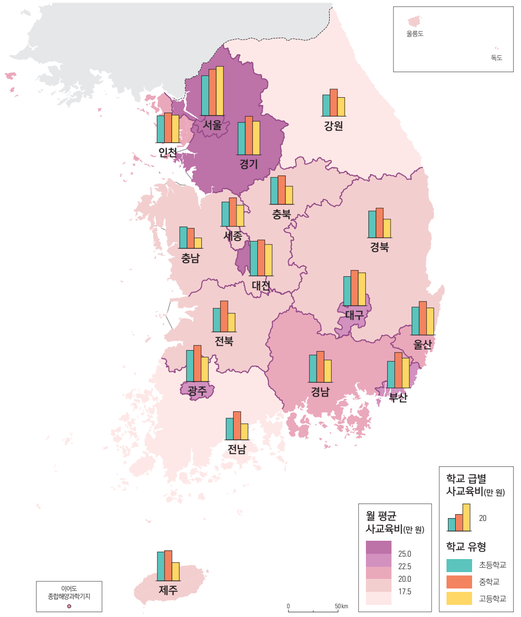
지역적으로도 수도권과 대도시에 사설 학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사교육에 지출되는 비용 역시 대도시 지역과 다른 지역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계층 간 교육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적 교육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학교 급별 사교육 참여율(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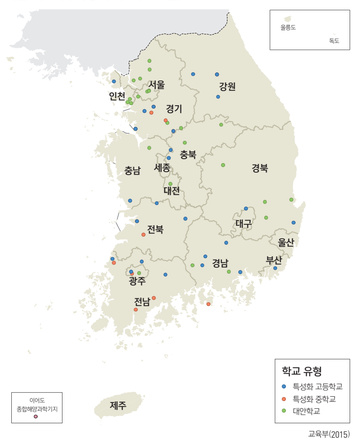
통계청(2014)

학교 급별 사교육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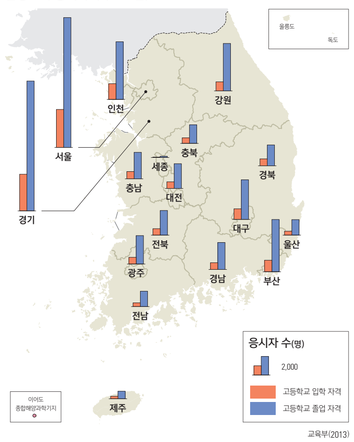
통계청(2014)

대안 학교 및 특성화 학교(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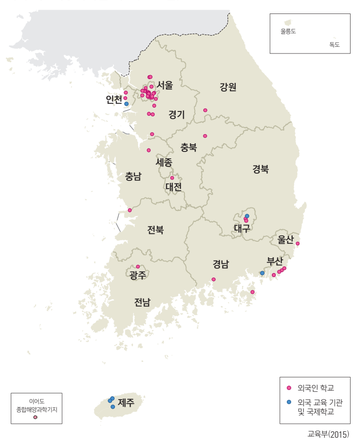
교육부(2015)

검정고시 응시자 수(2013년)



교육부(2013)

기타 학교 및 외국인 학교(2015년)



교육부(2015)

외국 교육 기관 및 외국인 학교(2015년)

	공용 언어						개설 과정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외국인 학교	27	14	2	2	1	1	37	41	33	26	
외국 교육 기관	7	1					2	2	2	2	5
제주 국제 학교	3						2	3	3	3	

(단위: 개소)

교육부(2015)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외국 교육 기관 및 외국인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외국 교육 기관은 외국에서 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학교이며, 외국인 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에게 본국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화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제주 국제학교가 설립되었다.

과거 외국인 학교는 화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화교 학교가 다수 설립되었다. 그러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현재는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를 포함한 다양한 외국인 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외국인 학교는 각 국가의 교육 과정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외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한국인의 일부에게도 입학을 허가하고 있다.

외국 교육 기관은 인천 송도 국제 신도시 등 특정 지역에서 외국 교육 기관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2012년 이후 설립되었다. 대안 학교 및 특성화 학교는 기존의 표준화된 학교 교육을 벗어나 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들은 대안 교육, 종교, 음악, 글로벌 교육, 자연 친화 교육 등 설립 목적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구 밀집 지역을 벗어나 학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지역을 선정하여 학교를 개설하고 있다.